

2016년 연간보고서



모두가 나의 아이들입니다



올 마이 키즈
www.allmykids.or.kr



목차

- 03 인사말
- 04 2016년 현황보고
- 07 2016년 결산보고
- 08 2016년 활동보고
- 16 함께해서 더 좋은 봉사캠프
- 17 함께해서 더 좋은 캠페인
- 18 나눔보고
 - ① 필리핀 다바오에서의 만남들
 - ② 아이들이 사랑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캄보디아 감병툼 아이들)
- 22 이야기 방
 - ① 우리는 가족입니다
 - ② 아이들이 자라듯 모성도 자란다
- 26 나눔 참여
 - ① 청년들의 희망 Dream 바자회
 - ② 미래를 위한 투자는 사람(부개동 성당)
 - ③ 김포 나비초등학교 학생들의 특별한 나눔 실천
 - ④ 도서출판 봄별의 따스한 나눔 소식
- 30 2016년 함께 해 주신 회원
- 35 주요 연혁



인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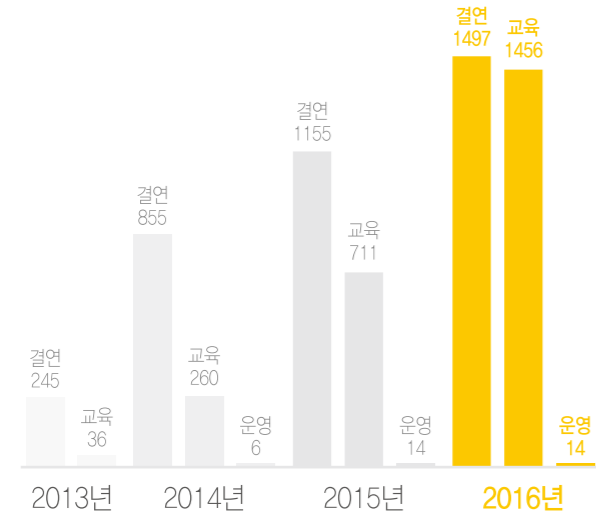
이사장 김영욱

올마이키즈를 통해 나눔의 모범을 보여주신 모든 후원자님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24개 나라 42개 지역에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꿈을 꾸며 공부하게 되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나눔으로 한 아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마을을 살렸습니다. 우리의 나눔은 남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나도 살리는 일입니다.

히말라야를 넘나들며 복음을 전한 인도의 성자 '썬다싱'의 일화입니다. 눈보라가 치는 어느 날, 그는 히말라야 산길을 넘어 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방향이 같은 여행자가 있어 두 사람은 동행을 하게 됩니다. 얼마쯤 갔을까 눈 위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썬다싱은 동행자에게 "우리 이 사람을 같이 데려 갑시다. 그냥 두면 분명 죽고 말 것이요."하고 말하자, "미쳤소? 우리도 죽을지 살지 모르는 판국에 한가하게 누구를 도와준단 말이오!"하며 화를 내면서 서둘러 가 버렸습니다. 썬다싱은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등에 업고 있는 힘을 다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눈보라는 갈수록 더 심하고 이제 정말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무거움을 참고 견디다 보니 온 몸에서는 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등에 업힌 사람의 얼었던 몸이 썬다싱의 더운 체온으로 점점 녹아 의식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마을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은 얼어 죽은 시체 하나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먼저 가버렸던 여행자이었습니다. 혼자서 먼저 가버렸던 그 여행자는 얼어 죽었고 죽어 가던 사람을 업고 간 썬다싱은 서로의 체온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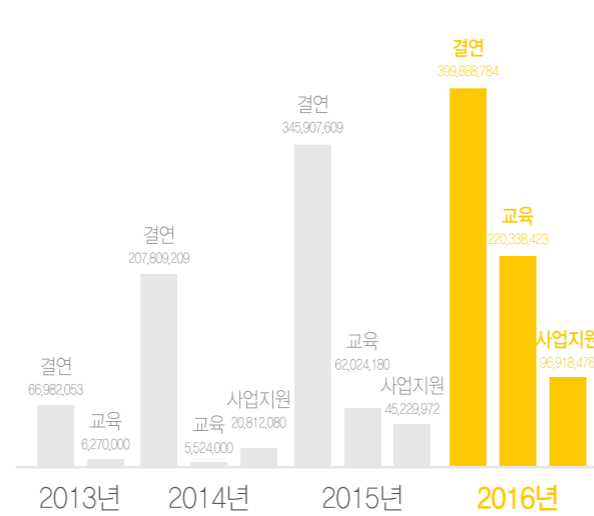
그렇습니다. 나도 힘들지만 더 절박한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미루지 않고 지금 바로 다가가는 마음에서 생명이 싹틔니다. 나눔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용기를 내어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신 후원자님께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 큰마음을 항상 기억하며 잘 전하겠습니다. 늘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회원 현황



연도	회원	인원(명)	증가(명)
2013년	결연회원	245	
	교육회원	36	
	합계	281	
2014년	결연회원	855	610
	교육회원	260	224
	운영회원	6	6
	합계	1,121	840
2015년	결연회원	1,155	300
	교육회원	711	451
	운영회원	14	8
	합계	1,880	759
2016년	결연회원	1,497	342
	교육회원	1,456	745
	운영회원	14	
	합계	2,967	1,087

후원 현황



연도	후원	후원금(원)	증가율
2013년	결연후원	66,982,053	
	교육후원	6,270,000	
	합계	73,252,053	
2014년	결연후원	207,809,209	
	교육후원	5,524,000	
	사업지원비	20,812,080	
	합계	234,145,289	220%
2015년	결연후원	345,907,609	
	교육후원	62,024,180	
	사업지원비	45,229,972	
	합계	453,161,761	94%
2016년	결연후원	399,888,784	
	교육후원	220,338,423	
	사업지원비	96,918,476	
	합계	717,145,683	58%

후원 어린이 현황

(단위:명)

대륙	국가	함께하는 단체	결연	프로젝트
아시아	네팔	거룩한말씀의회	10	70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24	70
		수커워티재단		250
	몽골	아름다운커피		100
		예수수도회	66	150
		샬레시오수녀회	1	
		대구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108	
		인보성체수도회	19	20
		ICM수녀회	25	
	방글라데시	한국외방선교수녀회	43	
	베트남	성가소비녀회	30	
	시리아	샬레시오수녀회	9	
	인도	마리아딸수도회	13	
	인도네시아	원죄없으신마리아교육선교수녀회	25	
	카자흐스탄	작은형제회	45	
	캄보디아	샬레시오수녀회	64	
		(사)행복공장	17	
		그리스도의교육수녀회	69	250
성가소비녀회		4		
예수회		39	250	
거룩한말씀의회		181		
필리핀	꽃동네수도회	24		
	말씀의선교수도회	105		
	성가소비녀회	60		
	예수성심전교수녀회	58		
	원죄없으신마리아교육선교수녀회	61		
	마리아의전교자프란치스코회	23		
아프리카	가나	샬레시오수녀회	10	
	가봉	샬레시오수녀회	16	
	앙골라	성심수녀회	67	
	차드	대구포교성베네딕도수녀회	77	
	탄자니아	도움이신마리아수녀회	20	
	카메룬	샬레시오수녀회	7	
	케냐	전교가르멜수녀회	26	
	코트디부와르	그리스도의교육수녀회	9	50
	콩고 공화국	콘솔라따수도회	29	
	말라위	샬레시오수녀회	20	
	말라위	샬레시오회	36	
	오세아니아	미크로네시아	도움이신마리아수녀회	
남미	마살제도	예수성심전교수녀회	12	
	볼리비아	성가소비녀회	23	
	페루	성심수녀회	6	
합계	24개국	42지역	1,481	1,210

조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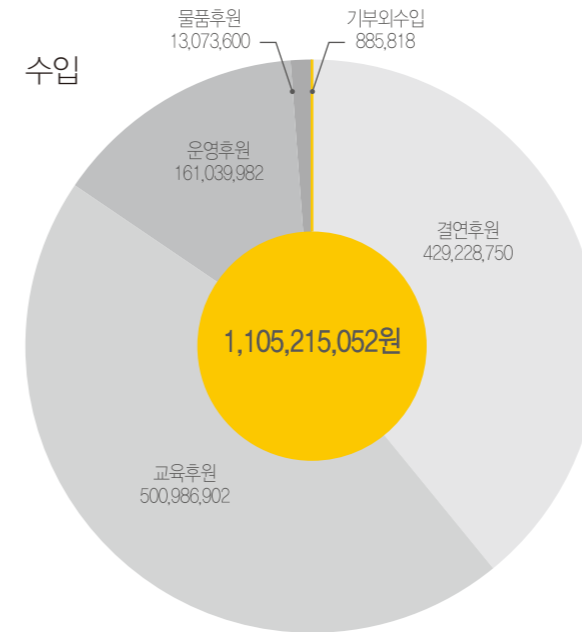
이사회		
이사장 김영욱(사제)	강은형(교수)	김상균(언론인)
김호식(기업인)	권병기(의사)	노지향(연극인, 교수)
박영대(활동가)	유철종(기업인)	이범석(사제)
이종인(교수)	이종진(사제)	이재천(사제)
이창현(변호사)	한경택(기업인)	호인수(사제)
감사 김영환(회계사, 기업인)	감사 이대훈(교수)	

배분 위원회		
성이혁수(공정여행 활동가)	양운기(수사)	이대훈(교수)
송성호(협동조합 CF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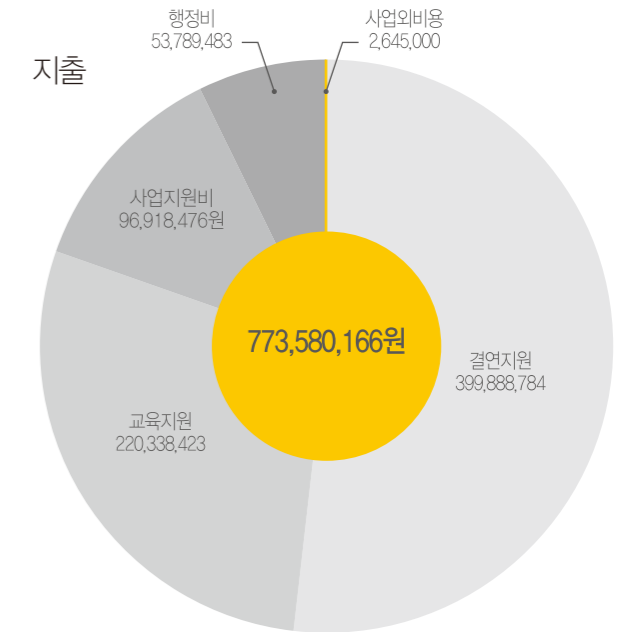
사무국		
회원관리팀	해외배분팀	회계 - 행정팀

위해드림 봉사단		
홍보봉사	사무보조봉사	해외봉사

2016년 연간 결산



구분	항목	금액(원)
목적사업비	결연지원	399,888,784
	교육지원	220,338,423
	사업지원비	96,918,476
	소계	717,145,683
행정비	인건비	42,036,000
	운영비	11,753,483
	소계	53,789,483
사업외비용	기타지출	130,000
	집기와비품	2,515,000
	소계	2,645,000
계	총계	773,580,166



구분	항목	금액(원)
목적사업비	결연지원	399,888,784
	교육지원	220,338,423
	사업지원비	96,918,476
	소계	717,145,683
행정비	인건비	42,036,000
	운영비	11,753,483
	소계	53,789,483
사업외비용	기타지출	130,000
	집기와비품	2,515,000
	소계	2,645,000
계	총계	773,580,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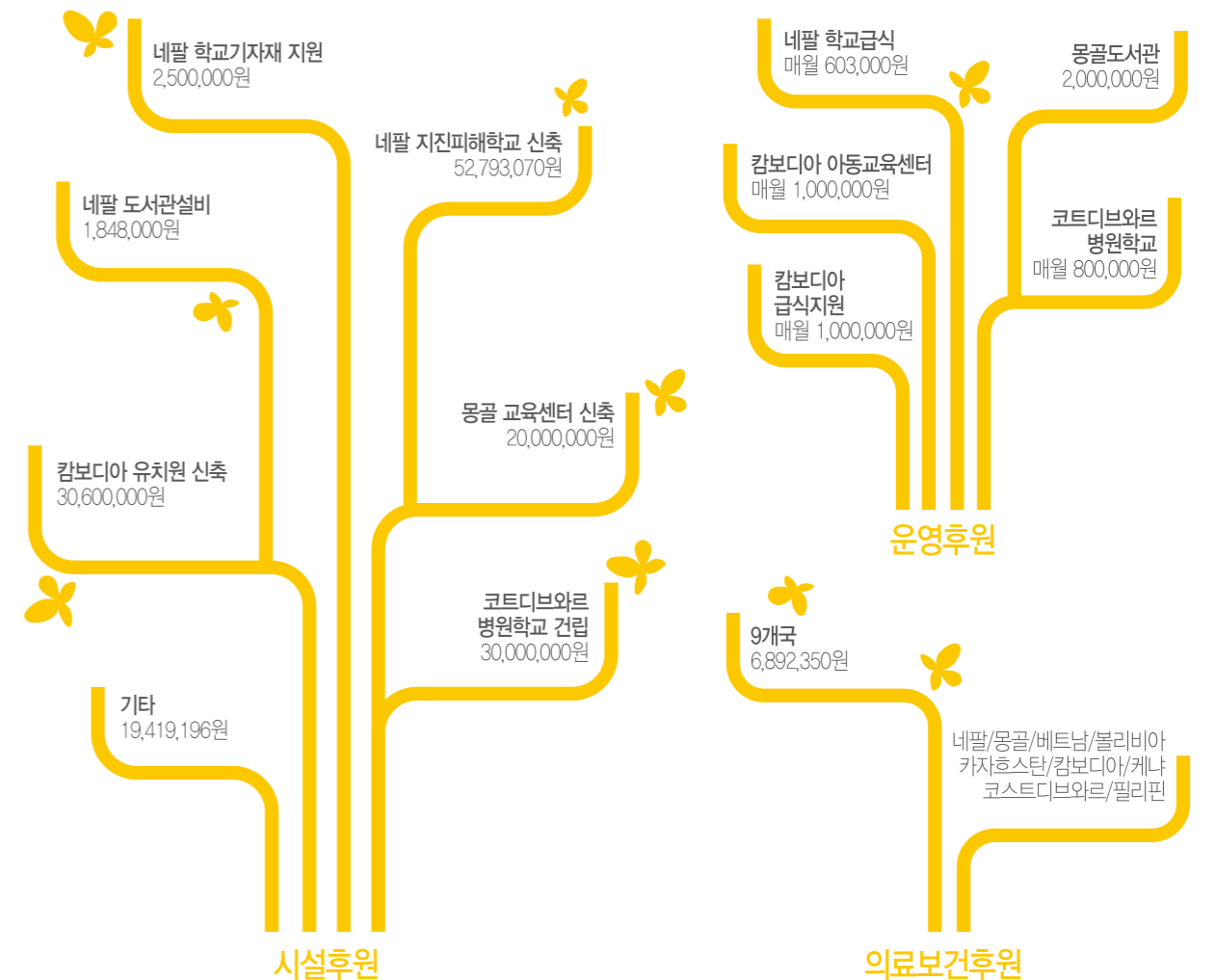
결연 후원(1:1 결연후원)

24개국 1,481명의 결연아동에게 매월 후원금 지급



교육(프로젝트) 후원

학교, 공부방, 마을 교육후원



시설 후원

네팔학교 기자재 지원

네팔 지진 피해를 겪은 아이들에게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음악·미술치료 교육기자재 지원



미술 수업



음악 수업

네팔 도서관 설비

아이들과 마을 주민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내 도서관을 마련



도서관 입구에 설치할 기부 현판



도서관 마당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네팔 학교 신축

네팔 대지진으로 붕괴된 후 정부의 복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된 지역의 학교를 신축 중



무너진 교실에서 수업중인 아이들



폐허가 된 교실

몽골 교육센터 신축

비좁고 추위를 막을 수 없는 게르로 된 아동센터를 안전한 건물로 신축



신축 이전의 게르 교실



신축된 아동센터에서 미술 작품과 함께

캄보디아 유치원 신축

외판 시골마을의 비가 새고 무너져 가는 낡은 유치원을 신축



신축 이전의 무너져 가는 교실



신축된 유치원 완공식

코트디부아르 병원학교 건립 및 운영지원

풍토병인 브릴리병에 걸려 장기입원 중인 아이들의 교육단절을 막기 위한 학교 신축 및 운영



병원 옆에 신축된 학교



브릴리병에 걸린 아이

운영 후원

네팔 급식지원

가난한 산간 마을에 위치한 넬링빠뜨르 초등학교 급식 지원



학교에 마련된 급식 조리실



전교생 급식지원

몽골 CCM도서관 지원

울란바타르 도시빈민 아동을 위한 독서활동 및 학습지도



도서관 내 공부방 수업



그룹 독서활동

캄보디아 급식지원

결손가정 아이들을 위한 기숙사 학생의 급식 및 유치원 간식 지원



맛있는 수프 간식



직접 갈아 만든 두유를 먹는 아이들

캄보디아 아동 교육센터 지원

작은 시골마을 아이들의 방과 후 이동교실 운영을 지원



쓰레기 마을 아이들의 이동교실 수업



마당에 모여 수업을 듣는 아이들

캄보디아 봉사캠프

같이놀자, 친구야



봉사단 발대식

캄보디아 교육센터를 후원하고 있는 송의동성당에서 2016년 8월 2일~10일(8박9일)까지 35명의 봉사단이 올마이키즈와 함께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함께 했던 신유진(고2) 봉사단원의 봉사소감문을 소개해 드립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나는 해외 봉사라는 큰 계획을 하루하루 기다리며 준비했다. 캄보디아에 가기 전 내 머릿속의 해외 봉사는 봉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해외 탐방이었던지도 모른다. 도착 다

음날부터 시작된 봉사는 지금껏 내가 해온 봉사와는 달랐다. 봉사란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여유를 버리고 수고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했지만 캄보디아에서의 봉사활동 시간은 그곳 아이들과 함께 놀고 즐기던 즐거운 시간이었다. 현지 아이들과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본 사이이지만 우린 서로를 기다리고 궁금해 하고 있었던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시간이 훌쩍 지나 봉사 마지막 날 우리는 아쉬움에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

처음에는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들과 친해지고 어떻게 소통할까라는 걱정에 그 아이들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정말 기우였다. 그 친구들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해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내 눈을 바라보며 내가 말하는 의미를 알아채주었다. 물론 캄보디아어를 조금만 더 공부해갈 것을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처음으로 참여한 해외봉사는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보람 있고 고마운 시간이었다. 만약 누군가가 해외봉사를 하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면 정말 후회 없고 즐거울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함께해서 더 좋은 봉사캠프

위해드림(We Have a Dream) 봉사캠프



캄보디아 봉사캠프에서 즐겁게 놀고 있는 아이들

지구촌 친구들을 만나 함께 공부하고 뛰어놀 수 있는 봉사캠프를 진행하려 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큰 추억을 선물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참여한 우리 '위해드림' 봉사단원들 마음 마다에도 잊지 못 할 추억이 하나 더 아로 새겨질 것입니다.

봉사캠프는 교육봉사와 교육 환경 개선 봉사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고등학생 이상으로 해외 봉사에

관심이 있는 후원자의 신청을 받아 진행될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열린 마음과 열정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봉사자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봉사를 하러 왔다가 오히려 본인들이 더 많은 것을 얻어간다는 말입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오간데 없이 헤어질 때면 함께 웃고 함께 지냈던 추억으로 서로 부둥켜안으며 헤어짐을 슬퍼하고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는 가슴 벅찬 경험을 하곤 합니다.

봉사캠프로 소중한 추억을 함께 만들어 갈 분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 양식은 (사)올마이키즈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봉사일정 : 2017. 8. 7. ~ 2017. 8. 14. (7박8일)

봉 사 처 : 캄보디아 뿌삿

홈페이지 : www.allmykids.or.kr

이 메 일 : allmykids@hanmail.net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해서 더 좋은 행복 캠페인

죄가 아니란다

대안 생리대 보급 캠페인

가축 우리에 갇히는 아이들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일이 한 소녀에게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일어나 보니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엄마에게 말했지만 엄마는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소녀를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가축 우리에 가두었습니다. 소녀는 이유도 모르는 채 4~5일을 우리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소녀는 한 달에 한 번씩 피를 흘리게 되면 우리에 갇혀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른 채 무서움과 고통에 눈물 흘려야 했습니다.

죄가 아니란다

언젠가부터 첫 생리를 축하하는 파티를 열어주는 가정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축하하고 축하받을 일이 저개발국 일부에서는 죄악시 하고 숨겨야 할 일로 여겨지며 어린 소녀들을 눈물짓게 하고 있습니다.

저개발국가의 아이들은 가난으로 생리대를 살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마치 죄인인 듯 취급당하면서 수치스러운 일을 저지르더라도 한 것처럼 괴로움을 겪기도 합니다. 소녀의 엄마는 아무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 엄마도 자신의 엄마에게서 그 어떤 설명도

듣지 못하고 당연한 듯 똑같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소유물처럼 여겨지는 여성에게 그 어떠한 발언권도 없었을 뿐 더러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생리혈이 굳어 맨살에 상처가 납니다

얼마 전 방글라데시의 한 학교를 방문했을 때 학교의 여선생님들이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생리를 시작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시키면서 대안 생리대를 제공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슬람 복장인 차도르를 입고 있는 소녀들 중에는 가난해서 속옷을 제대로 입지 못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생리를 하게되면 생리혈이 차도르에 묻고 그것이 굳어 날카롭게 되면 맨 살에 상처를 입혀 균이 퍼지고 부인과 질병에 걸려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올마이키즈에서는 이 소녀들에게 대안 생리대 보급을 통해 더 이상 친구들에게 놀림 받지 않고 생리주기에도 당당히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필리핀 다바오에서의 만남들

가장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결연후원

강미숙 필립보 수녀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

비가 오는 날의 샤워 겸 물놀이

창고로 쓰기도 어려울 만큼 비좁고 습한 그리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월세 단칸방에서 평균 7~8명의 가족이 함께 살아갑니다. 당연히 화장실과 수도시설이 별도로 있을리 없고 공용 화장실을 이용합니다. 하수 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보니 30분 정도 비가 내릴라치면 빗물과 더불어 차서 넘치는 하수구의 구정물과 쓰레기가 집 안에 까지 들어오는 것은 물론 허리까지 물어 차오르면서 잔잔한 강을 이룬 듯합니다.

그나마 다행인지 불행인지 큰 비가 낮에 오면 아이들은 비누 하나씩 들고 거리로 뛰어나와 졸졸 나오는 수돗물 대신 넉넉한 빗물 속에서 샤워 겸 신나게 물놀이를 합니다. 그로인해 피부병과 많은 질병에 방치되어 있지만 아이들은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이런 다바오의 아이들 중에서 좀 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선정하여 현재 180명의 아이들이 올마이키즈를 통해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7~8명의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월세 단칸방

축복의 문화

길을 지날 때면 저를 알아보는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Bless'를 외치며 반갑게 뛰어옵니다. 필리핀에서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연장자에게 상대의 손을 잡아 이마에 가져다 대는 방식의 축복을 받는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중 한국의 삼복 더위 같은 날씨에 신나게 뛰어나는 아이들은 온 몸이 흥건히 땀에 젖어 있는 것은 물론이요 고사리 같은 새까만 손은 알 수 없는 끈적임으로 범벅이되어 있지만 참 좋은 문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인사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 서로의 손을 잡음으로 인해 몸과 마음의 거리감이



달려와 인사하는 아이들

훨씬 좁혀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축복을 받기 전 본인의 이마의 땀을 닦아내는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는데 그럴 때면 그 친구가 누구보다도 반갑고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

가난한 가정 중에서도 더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 한 부모 가정의 아이들과 조부모님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위주로 선정하여 '올마이키즈'의 결연후원 아동으로 추천합니다.

주기적으로 가정방문을 하는데 전기가 없어 눈을 뜨나 감으나 다룰 것 없는 집에서 제가 왔으면 부쉬 질듯 한 남루한 침대가 가구의 전부입니다. 그

나마 이 또한 그 중 잘 사는 집이고 그나마도 없는 집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헤지고 얇은 이불하나 깔고 살아갑니다. 보고 또 봐도 익숙해지지 않는 모습이지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을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으로도 기적이겠다는 마음이 들던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마이키즈'의 교육후원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장학후원을 통해 보여주기 위한 성과를 내야하는 후원보다는 가장 가난한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교육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구나!"

가난한 아이들은 학업을 따라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몇몇 아이들은 후원자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땀방울 흘리며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제게 말하곤 합니다.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지독히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올마이키즈'의 후원아동이 된다는 것은 본인의 꿈을 이루는데 크나큰 첫걸음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토록 예쁘고 순수한 아이들이 희망을 간직하고 밝고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늘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이 헛되지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사랑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캄보디아 캄땡툼 아이들

이창준 로사리오 수사 (예수회)



캄땡툼 초등학교 아이들

아이들 소리가 끊이지 않는 캄땡툼 성당

성당이 지역 아이들의 놀이터며 쉼터가 된 건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지역 아이들은 방학 중 신앙 학교 때에 구름처럼 몰려오지만, 평소 성당은 많은 아이들이 뛰노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올마이키즈로부터 후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은 성당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캄땡툼 주는 캄보디아의 수도인 프놈펜에서 세 시간 거리, 앙코르 와트로 유명한 시엠립에서 한 두 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농업과 어업이 주산업인 캄땡

툼 주는 캄보디아의 여느 시골과 마찬가지로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캄땡툼 성당 근처에 캄땡로땀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성당에 찾아오는 아이들 대부분은 바로 이 캄땡로땀 초등학교 아이들입니다.

우기 때면 물에 잠기는 학교

정부의 지원이 턱 없이 부족한 이 학교는 건물조차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캄보디아의 교육 제도 자체는 프랑스의 교육법을 그대로 도입하여 선진국 수준이지만 현실에서는 부정부패가 심하며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합니다. 우기에는 물이 들어 찬 교실에서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가정 형편이 넉넉하거나 교육에 관심이 있는 집안의 아이들은 조금 떨어진 시내에 위치한 학교에 보내고 결국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만이 이 학교에 남아 다니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교장선생님을 통해 올마이키즈의 후원 대상자로 추천 받았습니다. 아이들을 만나며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은지 보았습니다. 한 가정 한 가정 찾아 갈 때마다 아이들은 집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안 계시거나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이 없는 것은 태반이었습니다.

물 만난 고기마냥 공부하는 아이들

아이들에게 공부하고 싶으냐고 물으면 그렇다고 대답하였지만 정작 본인은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공부하겠다는 아이들의 마음이 막연한 기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캄땡툼 성당에 공부방을 만들어 주자 아이들은 정말 물 만난 고기마냥 즐겁게 공부하며 또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교육 여건이 어렵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모르는 아이들에게 소중하게 받은 후원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을 하다 공부방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후원금을 바로 전해 주는 것이 수월할 수 있지만 당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걸 알기도 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더 학습할 수 있도록 교사를 찾았고 또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학교 수업에서 더 이상 뒤쳐지지 않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로는 학교에서 아이들의 수업 태도나 학업 성취 능력이 월등히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아이들은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꿈이 생겼고 성취해 나가는 힘이 생겼습니다.

나눔 것 이상 되돌려 주는 아이들의 사랑

무엇보다 감사한 건 아이들이 사랑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에 사랑 받으며 자라기 어려웠던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당에서 공부하며 매일 마주치는 신부님, 수녀님, 수사님 그리고 봉사자들에게서 사랑을 느낍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사랑 받은 아이들은 그 사랑 이상을 주변에 나눕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저희들이 오히려 아이들에게서 도움을 받습니다.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고백하건대 아이들은 저희가 나눔 것 그 이상을 저희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저희가 나눔 작은 사랑 앞에 아이들은 온 마음으로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들과 경험한 사랑의 체험은 아이들은 물론 이를 바라보는 이들까지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이 피어나고 꿈을 키워 나가는 모습이 이 아이들과 함께 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캄보디아에서 출발한 아이들과의 사랑이 세상 곳곳에 사랑을 전하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한 가족의 나눔 이야기

15살 강아지 하늘이가 반갑게 맞이해주는 조정욱님 댁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책장에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는 사진들입니다. 가족의 역사가 있는 이 특별한 박물관에는 조정욱님 가족의 후원아동인 미으 짬타의 액자와 편지도 함께 놓여 있습니다. 결연후원을 하고 계신 조정욱, 유현미, 조은비 가족을 만나보았습니다.

가족에게 생긴 또 하나의 가족

결연후원을 망설이는 분들에게서 듣는 이야기 중 대부분은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저는 나이가 많은데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 후원할 수 있을까요?” 혹은 “제가 경제능력이 떨어져 더 이상 후원할 수 없게 되면 아이는 학교를 못 다니게 될까요?”

결연후원을 한다는 것은 이렇듯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정욱님 가족은 이 전에도 다른 단체를 통해 후원했었지만 결연 후원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혼자였다면 후원을 고민했겠지만 셋이었기에 오히려 수월하게 결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 아이를 지정해서 도와주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여 특별히 가족 전체의 이름으로 후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조정욱님 가족에게 캄보디



나눔을 실천하고 계시는 조정욱님 가족

아에서 온 특별한 가족이 생긴 셈입니다.

가족의 행복은 덤

딸 조은비님의 후원 통장은 바닥나 있을 틈이 없습니다. 매 달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만 원씩 입금하기 때문입니다. 각자 책임감을 갖고 만원씩 모아 후원하니 부담은 줄어들지만 셋이 함께 할 수 있어 기쁨은 세 배로 늘어나는 것 같아 좋다고 합니다. 어머니 유현미님은 부부가 점점 나이 들어가며 경제 능력을 상실하게 될 날이 오겠지만 뒤를 이어 후원해줄 딸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 날이 결코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가족 끼리 대화가 많은 편이지만 후원을

시작한 이후로 이야기의 주인공이 자신들에서 아 이로 바뀌며 대화의 폭이 넓어졌다고 합니다. 아 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레 웃을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조정욱님은 이렇게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당신들이 내는 후원금에 비 하면 너무도 큰 것이라고 합니다.

기다려 주는 마음

올마이키즈는 후원아동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 각기 멀리 떨어져 사는 아이들을 일일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전기나 통신 시설이 낙후된 곳에서 이메일을 보내는 것 또한 수월한 일은 아닙니다. 조정욱님 가족은 후원 초기에 아이에게 자신들에 대해 알려주고 싶고 선물도 자주 해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소식을 자주 전할 수 없는 현지의 열악한 사정을 알게 된 후부터는 아이에 대한 궁금증은 한 곳에 남겨두고 묵묵히 뒤에서 기다려 주는 것이 중요한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현미님은 1년에 한 번씩 오는 아이의 성장 보고서를 보면 건강하게 커가고 있는 아이가 그저 기특하다고 합니다. 본인도 고등학생 시절부터 스스로 학비를 벌어서 다녀야 할 만큼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었는데

미으짬타를 보면 어려운 시절의 자신이 생각난다고 합니다. 인생은 항상 기쁨이 있기 마련이라 지금 어렵다고 해서 주저앉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면 좋은 날들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을 아이에게도 주고 싶다고 합니다. 자신도 나중에라도 아이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조정욱님은 저 멀리 있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함께 있다는 아이에게 성적이 낮아도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그저 바른 청년으로만 자랐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면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것이 가족 전체의 마음입니다.

한 아이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한 가족의 후원은 어느새 일 년 하고도 육 개월이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준 것보다 받은 것이 더 많다는 조정욱님 가족은 오늘도 사진을 보며 아이에게 격려와 응원의 인사를 보냅니다.

아이들이 자라듯 모성도 자란다

‘두 아이의 엄마로 17년’
‘두 아이의 후원자로 4년’

김윤정 후원자 기고 글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모성이 있다? 아쉽게도 저는 아니었던 거 같습니다. 젊을 때는 오히려 아이들을 싫어하는 편이었고 내 아이를 낳고서도 끊임없는 보살핌에 지치고 힘들어했던 날이 많았지 사랑이 넘쳐서 아이를 키운 적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들 속에서 무언가 차곡차곡 쌓이고 더께가 저 두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와 돌아보니 그것이 모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모성도 길러지고 자란다는 것을. 내 아이임에도 무조건적으로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 거 같다는 죄책감에서 해방되던 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길 가는 꼬맹이들만 봐도 꼭 안아주고 싶을 정도로 아이들이 예뻐합니다. 신기할 정도로 바뀐 제가 아직도 믿기지 않지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함께한 시간들 속에 그 해답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멀리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왔습니다. 무심하게 덤덤하게. 내 아이를 키우며 바쁘고 어렵다는 핑계로 미뤄왔



던 나눴던 마음이 올마이키즈 덕분에 제게 찾아왔고 덩달아 그 아이들도 제게로 왔습니다. 그 중 한 아이는 제 아들처럼 천식이라는 같은 아픔을 가지고 조금은 무겁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작은 정성뿐인데 미미해서 또 미안해서 그러나 이 마음 또한 해방되는 순간이 찾아올 거라고 믿고 꾸준히 후원만 했습니다. 사는 게 뭔지 까마득히 잊어버릴 때쯤 우편함에 도착해 있던 아이들의 성탄 카드를 받던 날이 기억납니다. 막연했던 아이들이 마치 실체가 되어 제게 쿵하고 다가왔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고 지냈던 미안한 마음과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교

차되어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운이 좋아서 아이들의 소식을 잘 듣는 편입니다. 상황이 더 열악한 곳의 아이들은 전기도 없고 우체국도 없어서 카드나 편지를 보내기 어려운 곳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필리핀은 그나마 나은 편이라 아이들의 소식을 한 번씩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한 번은 현지에서 아이들을 관리해 주시는 필리핀 말씀의 선교 수도회의 유진 신부님께서 한국에 오실 기회가 있어 올마이키즈에서 후원자와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지 상황에 대한 이야기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각자 후원하는 아이들에 대해 궁금했던 점도 물어보며 같이 안부를 전할 수도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또 작년 연말 카드에는 몰라보게 자란 아이들의 사진이 같이 왔는데 정말 아이들은 무럭무럭 잘 자라 더군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자라는 아이들이 대견하고 여러 어른들의 정성도 느껴져서 훈훈하기도 했습니다. 여린 아이들이 단단해지기까지 사회의 구성원으로 제 몫을 하는 재목으로 성장하려면 교육을 받아야하고 어른들의 보살핌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올마이키즈는 소외되고 어려

운 아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아닐까합니다. 저의 후원은 작은 정성이지만 작은 정성들이 모여 큰일을 해내는 올마이키즈를 보면서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며 정성을 다할 때 우리가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해낼 수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소중한 인연으로 만나 같은 시대를 살고 더불어 살기에 이웃의 어려움과 아픔을 서로 나누고 위로 합니다.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할 때 비로소 나도 잘 사는 것이고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날이 아이들이 자라듯 저도 조금씩 성장하고 올마이키즈도 아이들과 함께 커 간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우리 올마이키즈가 5살인가요? 무한한 가능성과 성장이 기대되는 아직은 파릇파릇한 새봄 같은 마치 어린아이 같은 나이입니다. 여린 잎이 단단한 초록으로 질어질 여름을 준비하며 바빠 움직이는 그 계절의 길목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동행할 수 있어 같이 걸을 수 있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누군가에게 쉼터가 되어주는 큰 나무로 모두가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랑이라는 햇빛과 관심이라는 양분, 실천이라는 물로 키워봅니다. 나의 아이들을. 엄마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의 희망 Dream 바자회

자발적인 나눔의 현장

2016년 1월 23일 인천교구 남구지구 청년연합회 청년들이 인천 도화동 성당에서 네팔 구호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얗게 입김이 나오는 영하 15도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참가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가 돋보였습니다. 미술공연, 풍물패공연, 경매행사, 음악경연(복면가왕) 등의 행사는 지루할 틈 없이 흥겨운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한쪽에서는 자모회 어머니들이 준비한 정성이 가득한 음식이 얼어붙은 몸을 따뜻하게 녹여주었습니다.



흥겨운 바자회 행사현장

이번 바자회가 더욱 의미 깊은 이유는 청년들의 자발적인 기획과 참여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각자 바쁜 시간을 쪼개어 두 달 동안 바자회에 내놓을 물품을 모으고 공연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청년연합회의 정일호 회장은 “이번 행사에 참여한 청년들과 올바른 기부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덧붙였습니다. 파는 사람도 즐겁고 사는 사람도 즐거웠던 바자회의 수익금 5,214,000원은 올마이키즈를 통해 네팔의 어린이들의 교육기반 재건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바자회 수익금 전달식

미래를 위한 투자는 사람(부개동 성당)

단체활동비 절약해 네팔 대지진으로 무너진 학교 건립기금 1억 5천만원 기부

천주교 인천교구 소속 부개동 성당 신자들이 2016년 10월 18일 네팔 학교 건립기금으로 1억5천만원을 기부하였습니다.

네팔은 2015년 4월에 일어난 대지진으로 8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많은 건물이 붕괴되었습니다. 학교도 붕괴되어 아이들이 마당에서 수업을 하고 어떤 학교 교실은 사용 불가 판정을 받아 위험 속에 수업을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외곽의 학교들은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부개동 성당 신자들은 이러한 소식을 듣고 나눔을 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번 나눔은 평소 성당의 단체활동비를 절약하여 모은 금액의 일부입니다. 성당이 오래되어 건립비용 적립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지금 당장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생각하며 오랜 시간 토론을 거쳐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네팔에 2개의 학교가 새롭게 재건되어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꿈을 키워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중한 나눔에 동참하고 싶다면 개인적으로 1천만 원을 기부하신 부개동성당 김원태 안토니



부개동 본당 기부증서 전달

오 사목회장은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다. 네팔 학교와 교류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우리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것 또한 미래에 대한 투자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올마이키즈는 학교재건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꾸준히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포 나비초등학교 학생들의 특별한 나눔 실천

예쁜 마음이 모여 기쁜 선물이 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9일 김포에 위치한 나비 초등학교 강당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모은 학용품과 의류, 잡화, 도서 등 기부물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나비 초등학교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잃어버리고도 찾지 않는 물건들이 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학용품은 예전처럼 귀한 물건이 아니라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을 찾지 못해도 아쉬운 마음이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주인 없는 물건들을 좋은 일에 쓸 수 없을까 생각하여 의견을 나눈 끝에 가난한 나라의 학생들에게 기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물품 모으기 행사를 통해 나비초등학교 학생들은 스스로 분실물 보관함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저개발 국가 친구들을 위해 물품 모으기 행사를 하고 싶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런 아이들 곁에는 기부에 대한 세심한 조언과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 박성우 교장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교장선생님은 나눔이 어려운 것만은

아니며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는 것이 곧 나눔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개발 국가의 아이들은 거친 종이나 잘 써지지 않는 연필로 힘겹게 공부 합니다. 이것조차도 없는 아이들은 흠바닥에 배운 것들을 써가며 공부한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게 복습합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나비초등학교 학생들이 마음이 담긴 학용품들은 기쁜 선물이 되었습니다.



물품 나눔을 실천한 김포 나비초등학교 교사, 학생회 임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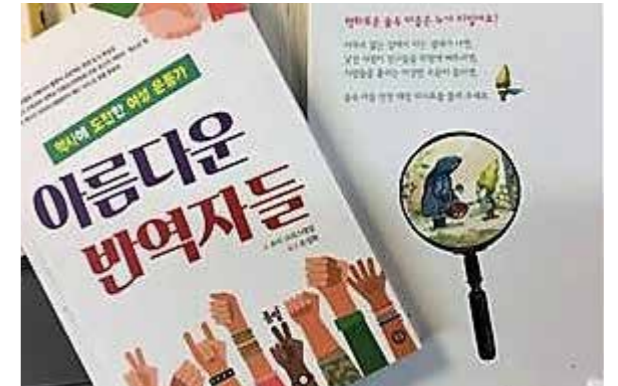
도서출판 봄별의 따스한 나눔 소식

아이들에게 따스한 봄별이 되기를

어린이들이 행복한 마음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따스한 약별이 되겠다는 도서출판 봄별은 최근 “안전대장 리시토”와 “아름다운 번역자들”이란 책을 내면서 판매 수익금을 올마이키즈와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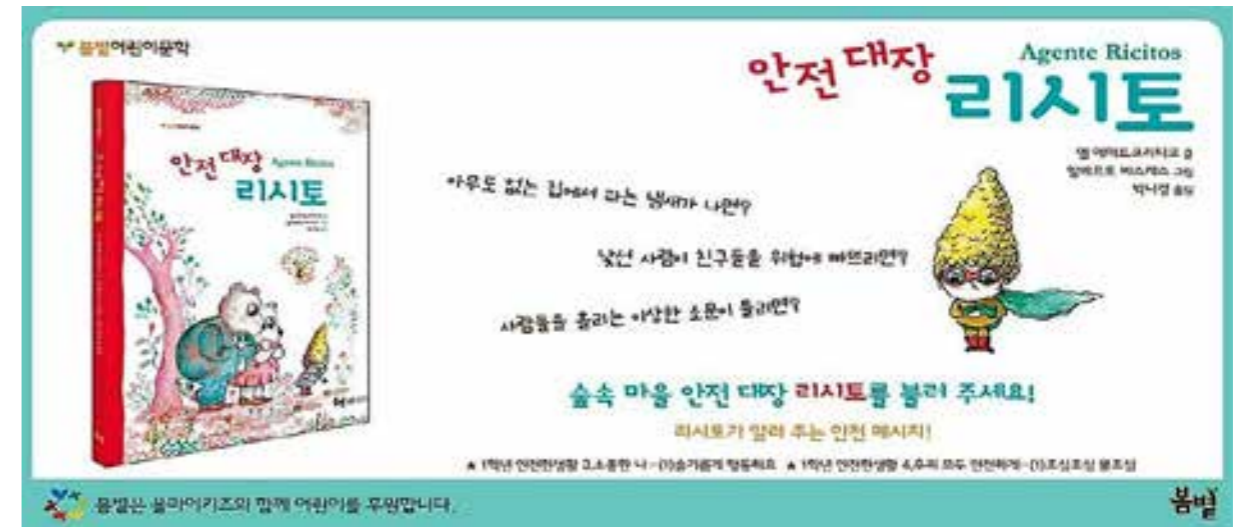
독자들은 수익금 기부의 뜻이 담긴 책을 구입함으로써 함께 나눔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좋은 책을 읽음으로써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와 마음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책들이 저개발국가 언어로도 번역되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척박한 땅에 교육의 꽃을 피울 수 있게 도와주신 도서출판 봄별 권은수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 함께 해 주신 회원

정명이,정명자,정명희,정무경,정미경,정미순,정미정,정미진,정민화,정병민,정병수,정봉덕,정상준,정선자,정성권,정성자,정성조,정성준,정성희,정수아,정수영,정숙,정순금,정순복,정순이,정순자,정순화,정승렬,정승예,정어진,정연서,정연섭,정연실,정연진,정영도,정영선,정영숙,정영순,정영애,정영자,정영자,정원숙,정원택,정원호,정유진,정윤경,정윤관,정윤송,정윤식,정익식,정인숙,정인영,정지윤,정재영,정재욱,정재은,정정남,정정량,정정순,정정임,정종선,정주아,정지연,정창화,정청원,정태양,정하성,정해경,정해순,정현남,정현식,정현주,정혜영,정혜민,정혜진,정화련,정화순,정효자,정훈숙,조경숙,조경자,조규순,조기갑,조기인,조나예,조남규,조덕홍,조동규,조명순,조명옥,조목희,조문기,조문자,조미선,조미선,조병호,조복례,조봉자,조상규,조석희,조선영,조성환,조수빈,조수흥,조숙자,조숙현,조순례,조순옥,조영미,조영배,조영자,조영주,조영희,조예슬,조옥열,조용석,조용희,조유선,조윤수,조은영,조은향,조의주,조인식,조인자,조인주,조자현,조정희,조준성,조진선,조진원,조춘해,조태성,조한구,조현수,조현숙,조화영,주능균,주선희,주영근,주정수,주진해,지공순,지광희,지다혜,지명수,지명자,지성자,지수현,지연자,진동현,진현희,차경옥,차병근,차병섭,차복례,차선미,차아인,차연희,차주한,차찬규,채명희,채미옥,채서진,채영일,채윤제,채인옥,채정윤,천선금,천정순,최경송,최경희,최고은,최광순,최광은,최근성,최기석,최기연,최남석,최덕순,최동민,최동철,최명숙,최명화,최문희,최미송,최미순,최미화,최범진,최병윤,최복녀,최삼순,최삼진,최상구,최상은,최선미,최선우,최성애,최성욱,최수연,최순식,최순영,최순옥,최순일,최승미,최승자,최신영,최신자,최연식,최연자,최영란,최영만,최영미,최영수,최영섭,최영애,최영이,최영재,최영호,최욱의,최완숙,최용석,최용희,최용섭,최은경,최인교,최인우,최인자,최정숙,최정우,최정윤,최정자,최종순,최종철,최지선,최지연,최지영,최지혜,최진이,최창호,최하일,최현우,최혜숙,최혜우,최혜화,최화자,최황순,최효정,최희선,최희영,추순옥,추연웅,추유경,추장숙,태민웅,태정민,패지윤,표기자,표순신,하나회,하미옥,하미자,하성,하순자,하재영,한경희,한국희,한금선,한도연,한동순,한명옥,한미환,한봉순,한봉애,한봉옥,한상국,한성주,한순이,한안나,한애자,한연석,한연주,한영숙,한영순,한은경,한은숙,한재숙,한정우,한정주,한준엽,한지연,한진경,한준희,한해균,한혜숙,하미숙,하미영,하상문,하숙자,하순애,허영주,허은희,허재백,허정임,현관명,현길희,현은정,호영자,홍광희,홍기표,홍두표,홍령,홍복수,홍선희,홍성권,홍성복,홍성자,홍수자,홍연순,홍영자,홍원배,홍윤정,홍익표,홍정숙,홍정희,홍지은,홍지훈,홍화연,홍희자,홍희정,화이팅,황경,황국자,황규정,황금순,황명숙,황미라,황미영,황미자,황선영,황세원,황순근,황영희,황용남,황은희,황인우,황점옥,황정남,황정옥,황태근,황한영,황현철,황혜영,김에리사,박로즈메리,선우순단,이대이지윤진

특별후원

강순건,구월1동성당,김원태,김재천,부개동성당,송의동성당,인천남구지구청년연합회,천상의커피,최복련

운영후원

330회,김병상,김상균,김영옥,김효식,박지인,유철종,이창현,한경택

기부물품후원

권혜영,김민정,김인숙,김정임,박병준,손재순,송인영,이연옥,이은희,이정자,임주현,최복련,그린스토어,김포나비초등학교,반석동성당사회복지분과,부부약국,부일중학교,부천희망재단,아름다운커피,영메디칼바이오,인천남구지구청년연합회,인천예고,일동약국,한국교육과정평가원,현대다사랑약국

주요 연혁

2012	08.24.	올마이키즈(allmykids) 설립
2013	01.27.	1차 후원회 홍보
	02.27.	1차 125명 아동후원 시작
	03.13.	필리핀 현지 방문(바콜로드)
	12.03.	시리아 담당 수녀 간담회 및 현지 어린이 의류 전달
2014	05.21.	필리핀 현지 방문(마닐라, 바콜로드, 세부)
	09.27.	필리핀(세부) 현지관리자와의 후원자 간담회
	11.21.	봉사자학교(11/21~12/12 매주 금요일 4회)
2015	01.15.	사무실 이전
	01.23.	비영리 사단법인 창립총회
	04.10.	경기도청 법인 설립 허가
	04.24.	사단법인 등록
	05.04.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부천시 자원봉사센터)
	06.30.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12.30.	국세청 기부금 영수증 간소화 자료 제출기관 등록
2016	02.26.	제1회 정기총회
	3월	코트디브와르 병원학교 건립
	4~8월	송의동성당 청소년 캄보디아 봉사캠프 협찬
	08.24.	설립4주년 감사행사
	9월	몽골 교육센터 건립
	9월	캄보디아 유치원 건립
	11월	네팔 지진피해학교 건립



2015년부터 소득공제 서류를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올마이키즈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556 신흥빌딩 401호

연락처 | 032-214-7700 팩스 | 032-214-7701

e-mail | allmykids@hanmail.net

홈페이지 | www.allmykids.or.kr

